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4월 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6.(화) 17시 10분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4. 6.(화)	담당부서	에너지혁신정책과
담당과장	윤요한 과장(044-203-5150)	담 당 자	이주영 서기관(044-203-5121) 윤영범 사무관(044-203-5122)

성윤모 장관, 알록 샤마 제2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(COP26) 의장과 면담

- 올해 11월 예정된 제2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(COP26) 회의를 앞두고,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제 논의 -

-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소개 및 녹색성장과 국제목표를 위한 연대(P4G)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 요청 -

□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.6(화) 알록 샤마(Alok Sharma)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26차 회의*(COP26) 의장과 면담(장소: 롯데호텔 서울)하고,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아젠다를 논의하였다.

* 유엔기후변화협약(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, UNFCCC) 당사국 총회(Conference of the Parties, COP)

○ COP26 회의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 등을 주요 의제로 올해 11월 1일~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□ 먼저, 성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되었던 COP26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,

○ 아울러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(Inclusive Green Recovery towards Carbon Neutrality) 비전 실현을 주제로 오는 5월 30일~31일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P4G(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)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샤마 의장을 포함한 영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.

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노력

□ 성 장관은 탄소중립이 여타 다른 나라와 달리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**한국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국가적 도전과제**이지만,

○ **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**로서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고 강조하면서, 금년 중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**범부처 시나리오 수립**과 함께 산업, 수송, 에너지 등 **분야별 세부 실행계획**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.

□ **(산업)** 성 장관은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**우선 기업 스스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**이 중요하다고 하면서,

○ 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 등 **주요 多배출업계**에서 최근 자발적으로 **'2050 탄소중립' 추진의사를 선언하고** 있으며 이를 위해 **기술 개발, 공정혁신 등을 위해 적극 노력**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.

○ 이에 정부도 ❶대규모 **한계돌파형 기술혁신 집중 투자**, ❷R&D 및 세제지원, 규제혁신 등 산업계의 **탄소중립 비용부담 완화**, ❸정부와 산업계간 **광범위한 소통과 대화를** 지속하면서, 탄소중립 추진의 **장기적 기반 구축을** 위해 ❹**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**, ❺**(가칭)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**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**(수송)** 성 장관은 수송 부문의 경우 전기·수소차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**'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을 시장 전망치의 약 3배 수준**인 **385만대**로 **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설정했음을 강조하고, 구매 보조금 확대, 충전 인프라 확충**은 물론 **수요·공급측면에서도 무공해차 조기 전환을 위한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**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.

ㅇ 특히,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내 **제조업 생산·고용의 약 11%**를 **차지**하는 **자동차 및 부품업계**의 **참여와 협조**가 **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** 이를 위해 지난 **3월말** 민관 공동으로 **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**를 **출범**하였으며 **업계는 경쟁력 있는 다양한 친환경차 공급**을 위해 **노력**하고, **정부는 R&D, 생태계 전환 등**을 **지속 지원**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.

□ **(에너지)** 또한, 성 장관은 **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부문**에서도 전력, 재생에너지, 정유 등 업종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**탄소중립 대응 방안**을 논의해 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,

❶ 우선, **석탄발전의 경우** 신규 허가 금지, 노후발전소 폐쇄 등 **과감한 감축대책을 추진**해 나가고, 석탄발전 상한제, 실시간 시장 도입 등을 통해 **전력시장을 보다 시장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갈 것**이라고 강조하였다.

❷ 이와 함께 **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'30년 20%, '40년 30~35%로 상향해 나가고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도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**하여 도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, **재생에너지 수요 확산**을 위해 한국도 **RE100** 이행이 가능하도록 **직접 PPA 도입 입법** 등을 통해 **이행수단을 마련**하였다고 소개하였다. 이를 바탕으로 **기업들의 RE100에 대한 관심**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, 향후 **민간의 참여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.**

❸ **수소분야**의 경우, '19.1월 **수소로드맵 수립**, '20.2월 세계 최초 **수소법 제정** 등 **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**하였으며, 특히, **그린수소의 조기 상용화**를 위해 수전해 등 관련 **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도 적극 추진**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.

❹ 아울러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**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, 소비, 거래**하는 **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大전환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**

- 특히, **전력 계통망을**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응하여 **선제적으로 보강**하고 에너지 저장장치(ESS) 등 **백업설비를 확충**해 나가는 한편,

- **재생에너지 변동성, 간헐성 대응**을 위해 **분산에너지 통합 발전소** (VPP: Virtual Power Plant) 제도 도입, **전력거래 자유화 및 혁신기술 실증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**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.

탄소중립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노력

□ 성 장관은 한국 정부가 **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기술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**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,

❶ 우선, '**그린뉴딜**'을 통하여 '25년까지 **친환경·저탄소 분야**에 **73.4조원의 재정을 투자**하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**저탄소 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**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.

❷ 또한, '**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**'을 통해 **10대 핵심기술** 개발과 기업의 全주기 성장을 지원하여 **신산업 창출을 촉진**해 나가는 동시에,

❸ 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도 **태양광발전 O&M, EV 배터리 관련 서비스** 등 유망분야 **에너지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**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.

□ 끝으로, 성 장관은 **COP26 회의 계기**에 **❶저탄소 기술 혁신, ❷CCUS 보급, 연료-원료 전환, ❸에너지 효율 향상** 등 다양한 분야에서 **긴밀한 다자간 협조체계를 구축**하고 이를 통해 **향후 국가간 모범사례** (best practice)**를 널리 공유해 나가자고** 덧붙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이주영 서기관(☎044-203-5121) 또는 윤영범 사무관(☎044-203-51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